**2022년 SIM 10일 기도: 세계 기도 축제**

# 소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통해 인류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교제하심에 따라 스스로를 여러 방법으로 나타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여러 용어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름, 은유, 특성의 설명, 지위와 권위를 드러내는 직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0일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목적, 우선순위 및 능력에 대한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구약의 이러한 용어들 중 일부에 집중할 것입니다. 누군가와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스스로를 내보이고 자신이 누군지는 나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우리 앞에 나타내신 하나님께 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일상에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전심을 다하여 SIM 의 글로벌 가족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하나됨을 표현하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연합될 수 있는 특별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있는것과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로 서로 격려하는 모습을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하고 약속된 성령의 선물을 기다렸 듯이, 우리도 함께 모여서 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새롭게 능력을 받아 미전도지역에 그리스도를 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1일차: 여호와 야훼

**기도 전 읽을 말씀:** 출애굽기 3장

## **기도를 위한 마음 준비:**

하나님, 우리가 잠잠하여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며 함께 하신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온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기:** (서두르지 말고 말씀을 천천히 읽으세요.)

출애굽기 3:4-6

4 여호와께서 그 (모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5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6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뵈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출애굽기 3:11-15

11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12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13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14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15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야훼)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 하나님을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기:

*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언약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당신의 백성을 잔혹한 압제자들로부터 출애굽하시는 사역에 그를 초대하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모세를 부르심은 그의 신분이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닌,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에 달려 있었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모세가 필요로 했던 것은 오직 주님의 함께하심 이었습니다. 이것은 모세 뿐만이 아닌 그 누구에게나 필요한 단 한 가지 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셨고 주님의 약속과 출애굽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 위해 개인적이고 특별한 이름을 그에게 밝히셨습니다.
* 하나님의 개인적이고 특별한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야훼[[1]](#footnote-1) ”라는 주님의 이름은 중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한한 마음은 그 깊이를 이해하기 위해 고군분투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셀 수 없이 많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통해 우리는 주님의 이름이 “내가 오늘 너에게 하나님인것처럼 앞으로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2]](#footnote-2)” 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뜻을 알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당신의 변함없고 헌신적인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기뻐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당신의 놀라우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주님 되심에, 그리고 우리와 모든 상황, 장소, 시간을 넘어 항상 함께 하실 것에 감사합니다. (잠시 멈추어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요.)

## 기대로 간구하고 기도하기:

*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당연하게 여기고 당신의 임재가 불충분한것처럼 살아온 것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도록 도와주세요.
* 우리가 당신의 신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의심함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당신의 삶,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신실하고 싶으신 사랑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만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말하거나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을 알리고 싶어 하시는지를 기억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우리가 주님 없이 살아가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랑과 긍휼함을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세요. 우리를 사용하사 주의 크신 이름이 열방에 알려지게 해주세요.
*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알아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 친구, 공동체의 이름을 기억해주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위대한 이름을 알려주세요.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과 지역 사회를 위해 기도하세요.)
* 주님, 오순절이 10일 남았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기다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하며 기다린 성도들처럼 우리 또한 당신께서 이루실 일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다시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가 당신을 알지 못하는 지역사회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이 기도 모임에서 새로운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2일차: 가장 높으신 하나님

**기도 전 읽을 말씀:** 창세기 14장, 시편 46편, 91편

## 기도를 위한 마음 준비:

하나님, 우리가 잠잠하여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세요. 시끄럽고 분주한 이 세상은 우리를 당신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이 기도 시간 동안 우리가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기:** (서두르지 말고 말씀을 천천히 읽으세요.)

창세기 14:14-20

14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삼백십팔 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15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16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17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18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19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20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십분의 일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시편 46:1-6

1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2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3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4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5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6 뭇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매 땅이 녹았도다

시편 91:1-2

1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2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 하나님을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기:

* 아버지, 아브람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세 왕을 무찌른 이야기는 놀랍습니다. 아브람과 그의 318명의 부하들은 수많은 전투와 승리를 경험한 전문적으로 훈련된 군대와 맞서는 것에 대해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아브람은 비록 땅에서의 전쟁을 치뤘지만 우리는 그것이 혈과 육의 싸움만이 아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전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둠의 힘은 압도적이었고 많은 위태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은 만왕의 왕이시며 아브람의 원수들을 그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당신은 천지를 창조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게 참 하나님이신 당신은 다른 모든 신들 위에 홀로 서 계십니다.
* 하나님, 이 세상에는 점점 어두워지는 사탄의 그림자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뉴스는 충격적이고, 슬프며, 끔찍합니다. 나라들은 서로를 대항하며 싸우고, 종족들은 다른 종족을 억압하며, 정의를 거부하고도 처벌받지 않는 권력에 굶주린 지도자들의 끝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온갖 탐욕과 이기심이 우리 사회, 가족, 기관, 환경을 파괴시키고 이 세상을 고통과 파멸로 이끌고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는 당신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환난 때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는 분 이십니다. 우리가 주의 피난처에 거할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하나님되심을 기뻐하고 찬양하세요.)

## 기대로 간구하고 기도하기:

*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저희에게 다음과 같은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요일 4:4)

아버지, 이 말씀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열등한 신들으로 인해 시야가 흐려지고 두려움을 느낌을 용서해주세요.

* 예수님, 우리는 당신이 최고로 다스리시며 모든 지배와, 권위와, 권세를 파괴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기뻐하며, 우리가 당신의 큰 보호 아래 있고,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 하나님, 세상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당신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사랑의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할 때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 하나님, 많은 사람들과 지역사회가 무가치한 우상을 붙들며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들로부터 우상을 버리지 못 하는 악함을 제거해주시고 당신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잠깐 멈추고 이 사람들과 지역 사회를 위해 기도하세요.)
* 주님, 오순절이 9일 남았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기다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하며 기다린 성도들처럼 우리 또한 당신께서 이루실 일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다시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가 당신을 알지 못하는 지역사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기도 모임에서 더 큰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엡 6:12, 요일 4:4, 골 1:18, 고전 1:18; 15:24-28, 역대하 15:24-28; 20:12-17, 욘 2:8

# 3일차: 보시는 하나님

**기도 전 읽을 말씀: 창세기 16장, 창세기12:1-21**

## 기도를 위한 마음 준비:

하나님, 우리가 잠잠하여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세요 여호와여,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주목하시는줄을 압니다.우리가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고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잠시 멈추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기:** (서두르지 말고 말씀을 천천히 읽으세요.)

창세기 16:7-9

7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 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8 이르되 사래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래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9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창세기 16:13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뵈었는고 함이라

창세기 21:15-20a

15 가죽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16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 우니
17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18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19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20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 하나님을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기:

* 아버지,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시고, 들으시고, 돌보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되심을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우리의 가장 큰 필요를 아시고, 찾아 주시고, 구해 주시는 분입니다. 당신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소외되고, 버림받고, 억압당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을 구원하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당신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수호자 되십니다. 당신은 젊은 여인이자 외국인, 노예, 유배자, 홀어머니였던 하갈을 구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갈은 하찮은 사람이었지만 당신에게 그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랑받는 딸이었습니다.
* 우리는 하갈이 도망쳐 돌아왔을 때 아브람이 어떻게 반응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아브람께 말씀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그녀에게도 말씀하셨다는 것을 들었을 때 아브람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브람에게 약속을 하신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갈에게도 약속을 하신 걸까요? 하나님, 우리는 공로나 지위가 아니라 놀라운 은혜와 공급하심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람이 하갈의 이야기를 믿고 그의 아들을 이스마엘이라고 이름 지은 것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 또한 당신의 아낌없는 사랑 앞에 엎드립니다.
* 주님, 우리가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 갈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문화적 사각지대와 무지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창 16:13)” 이라고 지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하갈은 이집트에 살았던 시절부터 신의 이름을 짓는 것이 익숙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 이름을 받으시고 하갈의 후손인 우리까지도 축복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하나님되심을 기뻐하고 찬양하세요.)

## 기대로 간구하고 기도하기:

* 아버지, 우리가 당신의 보살핌과 긍휼히 여기심을 당연하게 생각함을 용서해 주세요.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우리의 마음이 무뎌질 때도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가 다른 이들, 특히 가난하고 힘 없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신분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을 용서해주세요. 예수님, 우리는 모두 당신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 3:28)

* 하나님, 우리가 다양성을 통해 한 몸으로써 강해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초교파적, 국제적, 다민족적인 것은 이 다름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일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실수를 저지르고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성령님, 당신의 인내하심과 사랑의 은혜를 서로에게 베풀 수 있도록 가르쳐주세요.
*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를 당신과 같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와 힘 없는 자,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볼 수 있는 긍휼의 눈을 주세요. (이 사람들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세요.)
* 주님, 오순절이 8일 남았습니다.성령의 선물을 기다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하며 기다린 성도들처럼 우리 또한 당신께서 이루실 일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다시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가 당신을 알지 못하는 지역사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기도 모임에서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경말씀:** 갈 3:28

# 4일차: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 전 읽을 말씀: 창세기 12:1-3, 15:1-6, 17:1-8, 21:1-6, 22:1-19**

## 기도를 위한 마음 준비:

하나님, 우리가 잠잠하여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는 너무 쉽게 주의가 산만해집니다. 이 기도의 시간에 당신을 만날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시켜주세요.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기:** (서두르지 말고 말씀을 천천히 읽으세요.)

창세기 17:1-8

1 아브람이 구십구 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2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3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4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5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6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7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세기 22:2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 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 하나님을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기:

* 아버지, 당신의 하나님되심을 밝히시며 우리를 당신께로 더욱 가까이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도전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칭호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씨름하며 믿음을 키워 나갔습니다. 그는 25년 동안 자신의 상황을 분석하고, 계산 하고, 장애물을 보고, 제약 조건들을 저울질 했습니다. 또한, 그는 아들이 없는 자신에게 어떻게 당신께서 땅과, 민족과, 축복에 대한 약속을 성취시키실 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신께서 약속을 언제, 어떻게 성취하실지에 대해 고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의 조카 롯이나, 그의 종 엘리에셀을 통해, 그리고 마침내 그의 서자인 이스마엘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 아브라함과 사라의 노년에 아들 이삭을 주시며 아브라함과 그의 집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약속 이행 능력은 사람의 의지나 능력이 아닌, 신실하심과 권능에 달려있음을 깨닫습니다. 아들을 주신 후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당신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도록 명령하셨고, 그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이행은 이삭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당신의 능력은 당신의 하나님되심을 통해 행해졌고 앞으로도 그럴 것 입니다.
* 하나님, 우리는 당신이 약속을 지키는 분이심을 경외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실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고 찬양하세요.)

## 기대로 간구하고 기도하기:

*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실 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해주세요. 또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위하여 상황을 계산하고 마음대로 바꾸려 하며 하나님 보다 우리의 생각을 더 우선시함을 용서해주세요.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 하나님, 주님을 가장 알지 못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모든 장애물과 제약 조건을 살펴보고 때와 방법을 알아내려 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마 9:37a-38)

우리 삶 가운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새로운 열정과 협력하는 교회들 안에서의 해외선교에 대한 갈급함을 불 붙여 주세요.

*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에 대한 기도를 드리는게 더 안정적이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우리가 당신께 더욱 의지하며 믿음이 큰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을 모르는 우리의 가족, 친구, 지역 사회를 당신께로 인도해주세요. (잠시 멈추고 이 사람들과 지역 사회를 위해 기도하세요.)
* 주님, 오순절이 7일 남았습니다.성령의 선물을 기다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하며 기다린 성도들처럼 우리 또한 당신께서 이루실 일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다시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가 당신을 알지 못하는 지역사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기도 모임에서 더 큰 기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고후 9:8, 마 9:37**

# 5일차: 영원하신 하나님

**기도 전 읽을 말씀:** 창세기 21장, 시편 90편

## 기도를 위한 마음 준비:

하나님, 우리가 잠잠하여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여러 방향으로 흩어지기 쉽습니다. 지금 이 기도의 시간에 집중하고 당신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기:** (서두르지 말고 말씀을 천천히 읽으세요.)

창세기 21:9-14

9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10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11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12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13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14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

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창세기 21:25-27

25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26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27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창세기 21:32-34

32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33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34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창 21:32-34)

시편 90:1-4

1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2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3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4 주의 목전에는 천 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 하나님을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기:

* 오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주님, 열심히 삶을 살아내고 사역에 동참한 후에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데, 아브라함은 에셀나무를 심고 광야를 바라보며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25년 후 고대하던 약속의 아들이 생겼을 때, 이미 노인이 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그 기다림이 기쁘면서도 고단했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후에는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내려는 비통한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두 사람이 브엘세바 광야로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장면의 괴로움은 오랫동안 아브라함에게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우물을 놓고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과 맺은 조약의 미묘한 정치적 문제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렬한 순간들 이었을까요! 이 모든 갈등은 좋은 결과에 상관 없이 힘든 과정들을 동반했을 것입니다.
* 삶과 사역은 이와 같습니다. 출산과 결혼에 대한 축하는 질병과 죽음에 대한 애도로 급격히 바뀔 수 있습니다. 계획이 순탄히 흘러가고 사람들이 축복을 받음으로 인한 사역의 기쁨도 우리의 노력이 오해 받게 되거나 갈등으로 이어진다면 결국 절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주님, 삶의 밀물과 썰물에서 우리는 방향을 잃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준점이자 거주지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당신만이 모든 시간과 역사 가운데 위치한 우리의 작은 순간들을 아십니다. 우리에게 삶의 날들을 가르쳐 주사 우리가 통찰력과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당신은 영원한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의 가장 높은 곳에서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유한한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이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당신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둘러 싼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하나님되심을 기뻐하고 찬양하세요.)

## 기대로 간구하고 기도하기:

*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돌보아주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시공간을 다스리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당신의 영광과 위엄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하나님, 우리가 세계 선교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에 너무 집중하느라 그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 잊어버림을 용서해주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 28:19-20)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주님께 드려지는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보지 못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는 불안과 절망에 쉽게 굴복하고 작은 일들을 크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당신 안에 있는 참된 안식처로 인도해주세요.
* 하나님, 많은 사람들과 지역들이 아직도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드러내 주세요. (잠시 멈추고 이 사람들과 지역 사회를 위해 기도하세요.)
* 주님, 오순절이 6일 남았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기다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하며 기다린 성도들처럼 우리 또한 당신께서 이루실 일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다시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가 당신을 알지 못하는 지역사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기도 모임에서 더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경 말씀:** 시 90:12, 마 28:19-20

# 6일차: 필요함을 채우시는 하나님

**기도 전 읽을 말씀:** 창세기 22장

## 기도를 위한 마음 준비:

하나님, 우리가 잠잠하여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는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완전히 나아가고 당신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기:** (서두르지 말고 말씀을 천천히 읽으세요.)

창세기 22:4-8

4 제삼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5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6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7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8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창세기 22:9-14

9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여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10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11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3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4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 하나님을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기:

*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는 때때로 시험을 겪을 것입니다. 또한, 당신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는 데 필요한 양분을 위해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는 당신의 뜻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시험이 다가올 지라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아브라함은 당신께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했습니다. 당신께서 “아브라함” 이라고 부르셨고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답한 장면을 통해 우리는 당신이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었는지 이미 알고 계셨음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언제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어디에 있던 하나님 앞에 언제든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당신의 뜻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아브라함이 어린양에 대한 이삭의 질문에 대답한 방식은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바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믿음을 통해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아브라함은 당신이 필요함을 채우시는 여호와이심을 배웠고, 그를 통해 자신이 살아서 보지 못할 약속의 성취됨을 믿게 되었습니다.
* 하나님, 당신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구하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아셨기에 이 시험이 얼마나 가슴 아플지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것을 당신께서 직접 행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일은 산을 오를 때 동행했던 아들과 여전히 함께 내려올 수 있을지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하셨던 일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산에 오르사 당신의 하나뿐인 사랑하는 아들을 온 세상을 구원할 완전한 어린양으로 희생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사랑이 있을까요! 우리의 가장 큰 필요를 공급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다른 필요들 또한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채우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 당신을 경외하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하나님되심을 기뻐하고 찬양하세요.)

## 기대로 간구하고 기도하기:

* 하나님, 당신께서는 복음이 가장 알려지지 않은 지역 사회에서 그리스도를 알리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그 도중에 열매가 보일 때도, 일을 모두 마친 후에야 열매가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상관없이 우리가 믿음과 순종 안에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 하나님, 저희가 마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가지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이 아닌 이 선물들에 마음을 뺏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주님 되심을 우선 순위에 둘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 하나님, 당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약 1:2-4)

성령님,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말씀에서 나온 기쁨의 참 의미를 우리 마음에 가르쳐주세요.

* 공급하시는 여호와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도로 품을 때, 그들 또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게 해주세요. (이 사람들과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 주님, 오순절이 5일 남았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기다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하며 기다린 성도들처럼 우리 또한 당신께서 이루실 일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다시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가 당신을 알지 못하는 지역사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기도 모임에서 큰 신뢰와 순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히 11:1, 약 1:2-4, 요 1:29

# 7일차: 평강의 하나님

**기도 전 읽을 말씀:** 사사기 6장, 7장

## 기도를 위한 마음 준비:

하나님, 우리가 잠잠하여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당신의 임재에 주의를 기울이고 당신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기:** (서두르지 말고 말씀을 천천히 읽으세요.)

사사기 6:1-4

1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칠 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시니
2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3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4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 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사사기 6:11-16

11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12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13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14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15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16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사사기 6:22-24

22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23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24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 하나님을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기:

* 아버지, 모든 교만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디안이 7년동안 이스라엘을 공포에 떨게 한 후 기드온은 끊임없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았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했고 당신이 그와 그의 백성을 버렸다고 확신했기에 여러가지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기드온이 지치고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기드온의 불순종과 의심을 인내와 긍휼함으로 다루셨습니다.
* 하나님, 기드온이 마침내 당신이 누구신지 깨닫고 당신이 평강의 하나님이심을 인정 했을 때에 그의 현실 상황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디안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며 압제 하고 있었고 기드온은 여전히 가장 약한 가문의 일원이자 가족 중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나왔을 때와 비슷하게 아직까지도 민족을 구원할 강한 전사가 되기에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이 우리의 현실 상황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것을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상황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내적 성품을 변화시키사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 하나님, 당신의 임재에 대한 확신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안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안은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따라 흔들리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취한 것들 혹은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평안을 찾는 것은 헛된 일이며 오히려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만이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을 몰아내고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게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를 충족 시키실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하나님되심을 기뻐하고 찬양하세요.)

## 기대로 간구하고 기도하기:

* 하나님, 당신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슬픔과 스트레스가 찾아올 때에 당황하게 됩니다. 우리가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좌절과 고통을 주게 된다면 그런 우리를 용서해주세요. 우리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도록 도와주시며,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주세요. 당신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해 주세요.
*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롬 5:1-2)

주님, 이와 같은 약속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당신께서는 참된 평안을 현실로 만드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찬양합니다.

* 하나님, 아직 당신의 평안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드온처럼 스스로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안정감을 느끼지 못 합니다. 그들이 삶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당신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격려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세요. 성령님, 저희가 평화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하나님, 혼란에 빠진 여러 지역 사회와 나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테러, 전쟁 및 환경 재해로 인해 수백 만명의 삶이 파괴되었고 집을 잃었습니다. 당신의 자비로운 개입하심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진정한 평강의 왕이심을 알게 해주세요. (잠시 멈추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지역사회와 나라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 주님, 오순절이 4일 남았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기다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하며 기다린 성도들처럼 우리 또한 당신께서 이루실 일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다시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가 당신을 알지 못하는 지역사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며, 이 기도 모임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경 말씀:** 사 9:6, 요 16:33, 롬 5:1-2, 골 3:15-17, 시 34:14

# 8일차: 만군의 하나님

**기도 전 읽을 말씀:** 사무엘상 1장, 17장, 시편 84편

## 기도를 위한 마음 준비:

하나님, 우리가 잠잠하여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당신의 은혜의 보좌에 가까이 갈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조용해지도록 도와주세요.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기:** (서두르지 말고 말씀을 천천히 읽으세요.)

사무엘상 1:10-11[[3]](#footnote-3)\*

10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1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사무엘상 17:43-45

43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44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45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시편 84:8-12[[4]](#footnote-4)\*

8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9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10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11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12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 하나님을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기:

* 아버지, 당신의 영원한 말씀과 그를 통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한나와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불임의 수치심과 또 다른 아내로부터 오는 경쟁과 짜증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만군의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수년간의 고군분투를 통해 한나는 자신이 상황을 바꿀 힘이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목적과 뜻에 따라 피조물을 움직이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닳았기에 한나는 당신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녀는 이 희망을 가지고 아들을 달라고 구하는 기도를 하며 온 마음을 쏟아 부었습니다.
*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로써 간과된 인물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양을 쳤던 다윗은 그의 하나님이신 당신이 만군의 하나님이신 것을 배웠고, 당신이 창조물을 다스리는 전능하고 주권적인 통치자이심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당신만이 이스라엘과, 열방과, 하늘의 군대를 움직이고 섬김 받으실 수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은 다윗의 용기의 근원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형의 거친 말에 대처하고, 이스라엘 군대에 드리워진 두려움을 이겨내고, 사울의 갑옷을 버리고, 거인 골리앗과 맞설 수 있던 이유였습니다.
*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 안에는 진정한 소망과 확신이 있기에 우리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삶과 사역에서 우리는 종종 우리를 압도 할 위협이 되는 사람들과 상황들에 직면하고 무력감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당신만이 당신의 선하고 온전한 뜻을 위해 창조물을 복종시키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세요. 만군의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신뢰하기로 선택할 때 축복을 부어 주심이 감사합니다.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고 찬양하세요.)

## 기대로 간구하고 기도하기:

* 하나님, 우리가 삶에서 나타나는 거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두려움에 굴복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당신의 강함과 주권은 순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나아가고 삶에서 주님을 경험할 때 깨닳을 수 있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당신을 섬기며 만군의 하나님 알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서로의 거인이 되어 사역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는 화목하지 못할 때도 있고, 서로를 화나게 하고, 짜증을 유발하고, 좌절 시키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당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신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 13:34-35)

* 여호와여, 만군의 하나님이 되심이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함을 전하기 위해 어려움을 넘을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 하나님, 우리는 당신이 가장 알려지지 않는 곳에서 당신을 알리기 위해 세계 및 지역 교회와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사역하도록 허락하신 교회들과 더 건강한 관계를 맺고 서로 사랑하고 양육하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잠시 멈추고 협력하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 주님, 오순절이 3일 남았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기다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하며 기다린 성도들처럼 우리 또한 당신께서 이루실 일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다시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가 당신을 알지 못하는 지역사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새로운 확신을 가지고 이 기도 모임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 13:34-35

# 9일차: 나의 목자되시고 주인되신 하나님

**기도 전 읽을 말씀:** 시편 23편

## 기도를 위한 마음 준비:

하나님, 우리가 잠잠하여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의 바쁜 생각과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 기도의 시간에 가장 귀한 분으로 자리하심을 환영합니다.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기:** (서두르지 말고 말씀을 천천히 읽으세요.)

시편 23:1-6

1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4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5]](#footnote-5)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 하나님을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기:

* 아버지, 시편에 나온 것처럼 우리와 관계를 맺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험난한 세상에서 압도되고 지칠 때 당신의 잔잔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우리가 마치 양처럼 당신의 공급하심과, 보호와, 인도를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신만이 우리의 가장 큰 필요와 가장 깊은 갈망을 충족해주심이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형통하게하시는 당신의 완전하고 끊임없는 헌신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변함없고 한결같은 사랑을 아낌없이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 길이 가장 어두운 계곡으로 이어질 때도 주께서 항상 함께하심을 알기에 우리는 안전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로운 주인이 되심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자비로 인해 우리는 당신의 호화로운 연회에 초대 받았고, 당신은 우리를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시며, 당신의 식탁 앞으로 데려 오십니다. 당신의 보호와 공급 아래에 있게 하심을 기뻐하며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선하심을 누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모든 의도와 열망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며,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이 최고의 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신실하고 충실한 친절을 베푸시는 당신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넘치게 채우실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위로가 되는지요! 하나님, 진심을 다해 감사합니다.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하나님되심을 기뻐하고 찬양하세요.)

## 기대로 간구하고 기도하기:

*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헌신적인 목자이자 관대한 주인으로 생각하기를 좋아하지만, 우리 자신을 당신에게 의존적인 양이나 감사하는 손님으로는 여기고 싶지 않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고싶은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또한, 우리의 완고한 교만과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하지 않는 태도를 용서해 주세요.
* 하나님, 제자를 삼으라는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랑의 목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인내하며, 함께 걷고, 깊이 사랑하여, 사람들이 우리가 당신의 제자임을 알게 해주세요.
* 사랑의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는 목자이시며 은혜로운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다른 사람을 돌보고, 환대하고, 관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성령님, 우리를 가장 어두운 골짜기에 있는 이들에게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임재와, 위로와, 격려가 임하도록 도와주세요.
* 예수님, 당신이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이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과 지역사회는 여전히 당신의 선하심과 변함없는 사랑을 알지 못하고 희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위대한 목자이신 당신을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람들과 지역 사회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 주님, 오순절이 2일 남았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기다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하며 기다린 성도들처럼 우리 또한 당신께서 이루실 일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다시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가 당신을 알지 못하는 지역사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더 큰 사랑과 너그러움을 가지고 이 기도 모임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경말씀: 요 13:15, 10:11**

# 10일차: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

**기도 전 읽을 말씀:** 출애굽기 32, 33, 34장

## 기도를 위한 마음 준비:

하나님, 우리가 잠잠하여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세요. 감사와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기:** (서두르지 말고 말씀을 천천히 읽으세요.)

출애굽기 32:19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출애굽기 33:12-20

12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배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13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14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15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 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16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1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앎이니라
18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19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베푸느리라
20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출애굽기 34:3-8

4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 산에 올라가니
5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새
6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7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삼사 대까지 보응하리라
8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 하나님을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기:

* 아버지, 모세는 힘든 사역을 맡았습니다! 바로와 대면하고, 장엄한 영적 싸움에 참여하고, 치열한 이집트 군대를 전복시키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노예생활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도전적인 임무였습니다. 그러나 더 큰 어려움은 자신의 백성을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 적대감, 배은망덕, 조급함, 질투, 반항, 분쟁 등 끝없는 불평의 연속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모세가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는 백성을 보고 분노해서 돌판들을 던진 일은 매우 절제된 반응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마음 이었을까요?
* 모세가 당신의 임재를 구한 것을 통해 우리가 어려운 사역의 순간에서의 대처방법을 배우게하심을 감사합니다. 좌절과 낙담 속에서 모세는 당신이 누구신지, 구체적으로는 당신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도록 더 큰 확신을 구했습니다. 모세가 당신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구했을 때 그는 자신이 요청한 것이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고 모세에게 그의 필요를 채우셨고 그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임재를 나타내셨습니다.

당신이 여호와 (야훼)이심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당신을 나타나셨을 때 이 이름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출 3:15b)

기복이 많은 사역의 시련 속에서 모세는 그 어느때보다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애와 신실함이 크사 천대까지 사랑하시며, 악과, 패역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런 당신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당신은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며 죄인에게 마땅한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여, 우리와의 모든 관계 가운데서 당신이 “편파적[[6]](#footnote-6)”이심을 찬양합니다. 당신에 모든 설명들은 자비와 은혜에 치우쳐져 있으며, 우리를 심판 하심은 당신의 절제된 공의를 나타내시는 행동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우리에게 이롭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편파적” 이신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여호와이심을 언제나 찬송합니다.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하나님되심을 기뻐하고 찬양하세요.)

## 기대로 간구하고 기도하기:

* 아버지,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고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참된 제자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함, 은혜, 인내, 사랑, 신실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예수님,우리는 당신이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알고있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당신의 “편파적”인 사랑은 정말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합당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당신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하나님, 협력하는 교회들과 공동체의 리더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성령님, 그들이 항상 당신의 임재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지 않으면 그 누구도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잠시 멈추고 리더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 주님, 오순절이 1일 남았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기다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하며 기다린 성도들처럼 우리 또한 당신께서 이루실 일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다시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가 당신을 알지 못하는 지역사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더 많은 기름 부으심과 능력으로 이 기도 모임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성경말씀:** 막 12:30, 골 2:9

1. 이 기도 편지에 등장하는 “하나님”이라는 칭호는 출 3:15에 등장한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인 “야훼”를 뜻한다. [↑](#footnote-ref-1)
2. 모세에게 자신의 고유한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흔한 동사인 “~이다” (to be)를 사용하셨지만 거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 의미는 문법적인 의미론 보다는 출애굽기 3장의 문맥에서 더 깊이 이해될 수 있는데 “야훼 (Yaweh)”는 일반적으로 “나는 그 자체이다”로 번역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내가 오늘 너에게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라고 암시하고 계신다고 이해 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야훼”를 부를 때 마다 우리는 그분의 변함없고 헌신된 신실하심을 상기하게 된다. . [↑](#footnote-ref-2)
3. \*참고: 삼상 1:3, 11에서 등장하는 “야훼 체바오트 (Yaweh Tsevaoth)”는 ESV, NASB 및 (N)KJV와 같은 번역본에서는 “만군의 여호와”로 번역된다. 그러나 일부 번역본에서는 “체바오트 (Tsevaoth)가 “샤다이 (Shaddai)” 와 다른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체바오트 (Tsevaoth)”가 “전능하신 여호와”로 번역되어 있다. 이 기도편지에서의 말씀은 개역개정본에서 가져온 것이며, 따라서 “야훼 체바오트 (Yaweh Tsevaoth)”를 “만군의 여호와”라고 번역한다. [↑](#footnote-ref-3)
4. [↑](#footnote-ref-4)
5. 히브리어 본문에서 ‘따르다’ (*radaph*) 라는 단어는 “추격하다 또는 쫓다” 로 번역된다. [↑](#footnote-ref-5)
6. “편파” 라는 단어는 빌 웹 (Bill Webb) 교수에 의해 사용되었다 [↑](#footnote-ref-6)